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자체청소년  
안전망팀사업 운영

부안군에서는 2022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선도사업) 사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확립과 고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특화된 지역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2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과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사업(꿈나래 지역대 운영), 맞춤서비스 연계(진로·자립지원), 필수연계기관 협력사업,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이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하여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걷기 챌린지  
워크온 운영

고창군이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위해 걷기챌린지 워크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워크온'은 개인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자기주도적인 건강생활을 도와주는 모바일 앱이다.

고창군보건소는 워크온을 통해 걷기좋은 길, 챌린지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해 워크온 챌린지로 10차례에 걸쳐 230여명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새해 첫 걷기 챌린지는 오는 17일부터 28일(12일간)까지 10만보 챌린지를 진행한다. 기간 안에 10만보(1일 최대 1만보 인정)를 달성한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가입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한반도 첫 수도 고창 1530 걷기 동아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 후 챌린지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고창군보건소 유병수소장은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복지 사각지대 줄일 것”

정읍시,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아동 양육비 10만원 인상 등 자립 기반 마련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정읍시는 한부모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빠른 자립, 자녀의 올바른 양육 지원을 위해 2022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가정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만 적용됐던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를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전

세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지원 대상이 6,510명에서 7,210명으로 700여 명 늘어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자립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월동비와 피부비 등 복지급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60% 이하다. 지난해는 6,510명의 한부모 가족이 13

억9천여명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족 힐링 나들이 사업도 추진한다.

가족 단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해 한부모 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희망지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가족은 가족별 자율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2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조금(자녀당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코로나19 2차 군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부안군, 총 50억 7580만원... 소득 상관없이 설 명절 이전 지원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13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2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금액은 50억 7580만원으로 군 예비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1월 12일 기준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차 군민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되며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되는 만큼 사용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이며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장에

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나 대형 전자판매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설 명절 이전 빠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 직원이 직접 읍면 지정지급처로 일제 출장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지급하는 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군 자체적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급개시 2주 만에 57% 가량인 27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개인정보 관리 수준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정읍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등 79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 침해 대책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총 3개 분야 13개 지표 21개 항목을 진단해 양호(90점), 보통(80점),

미흡(70점)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시행하며 교묘하면서도 일상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 왔다.

특히, 특히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의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도를 돌파하며 임인년 시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의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도를 돌파하며 임인년 시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현재 3억1100만원 모금)를 넘어섰다.

전날(12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천용호)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고창군사랑의열매 봉사단(단장 이혜숙) 100만원, 고창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석원) 30만원, 신림면이

장단협의회(협의회장 강성원)에서 각 마을 이장들의 성금을 모아 300만원, 원불교고창교당 불공회 100만원, 고창스마트홈(대표 송석기) 200만원, (주)까나모지 이장공사(대표 최정환) 200만원, 고창읍 합동농산(대표 박영순) 200만원, 고창청년벤처스(회장 한선웅) 71만원을 전달했다.

고창 통합RPC(대표 이정의), 한결RPC(대표 박종대), 오성RPC(대표 최형진)에선 백미10kg 2410포씩 총 300포를 고창군에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품은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7000원으로 인상

정읍시가 결식 우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올해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의 현실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1일 1식 지원되며 하루 결제 한도도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자 부재 등의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시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

을 대상으로 아동 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8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 급식카드를 지역 내 결식아동 식사 지원 가맹점 약 126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아동들이 다양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동 급식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www.bokjiro.gok.kr)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급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063-539-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더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